

겨울철새 11만마리 관찰...전남도, AI 차단방역 강화

65종 11만6천마리 발견...기온 급강하 영향 발생 범위 확대...농장·주변 도로 집중 소독

전남도는 1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겨울 철새가 11만마리 넘게 관찰됨에 따라 2월까지 강력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15곳에 대한 겨울 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65종 11만 6,000여 마리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순천만 3만 마리, 고흥호 1만9,000마리, 영암호 1만3,000마리, 금호호 9,000마리 순이다.

도내 총 겨울 철새 수는 전남보다 40%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2% 늘었다. 고병원성 AI와 관련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 수도 전남보다 45%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3% 늘었다.

특히 최근 기온 급강하로 기존 서식지의 먹이 자원이 소진되면서 겨울 철새가 소규모 무리로 분산해 주변 소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다수 관찰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2월까지 철새 간 교차감염으로 농경지

와 농장 주변이 계속 오염될 것으로 보고, 가금농장의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상시 예찰을 지속한다. 순천만, 고흥호, 영암호, 금호호 등 오리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집중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철새의 분변 채취, 폐사체 수거, 포획 등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겨울 철새에 의한 잔존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군과 농협의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소하

천에 인접한 가금농장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를 흙벽 적실만큼 매일 소독한다. 농장주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매일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를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현장 이행 확인도 강화한다. 전남도와 중앙부처 합동 현장확인반이 매일 농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농장 출입차량 통제 및 2단계 소독, 잦은 축사 출입 자제, 농장 출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이행상황을 중점 확인하고, 미이행 시 엄정 조치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철새가 농경지와 농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상황에서 농장주의 부주의한 행동이 고병원성 AI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2월까지 경각심을 갖고 예찰·방역 활동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총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전남 10건, 충북 4, 충남 3, 세종·전북 각 2건이다. 전남에선 영암 4건, 나주·무안 각 2건, 담양·강진 각 1건이 확인됐다.

/길용현 기자

‘선거비용’ 광주시장 6억·전남지사 13억

시·도 선관위, 오는 6월 지방선거 제한액 공고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

23일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장·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6억6,6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 선거 2억 200만 원 ▲서구청장 선거 1억7,500만 원 ▲남구청장 선거 1억 5,800만 원 ▲동구청장 선거 1억3,100만 원 순이다.

지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평균 5,020만 원 정도이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 1,800만 원이다.

지역구·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4,485만 원과 5,280만 원 내외이다.

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3억2,3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1억8,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 선거로 1억900만 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2,600만 원 정도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600만 원 정도이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900만 원 정도,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3,9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100만 원 정도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합장하는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해남 미항사에서 열린 대응보전 해체보수불사 고분식에 참석,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 축산악취 개선 315억 투입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7개 사업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315억 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축산 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공동처리 지원사업 등 7개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132억 원보다 2.4배가 늘어난 규모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 처리 개선과 악취 저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구축한다. 곡성, 보성, 장흥

등 7개 시군에 총 139억 원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1일 97t의 가축분뇨를 활용해 가스·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연간 1,579MM의 전기 생산과 4,156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국 2개소 중 전남이 1개소를 차지했다.

공동자원화시설(중축) 사업은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정화광류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전국 사업비 122억 원 중 가장 많은 54억 원(44%)을 확보, 나주, 해남, 영광에 지원한다.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액비 수거·운반·살포 차량 등을 지

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 보성, 화순, 장성에 총 8억 원을 투입한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은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해 농가 컨설팅과 과학적 실증으로 최적의 활용 모델을 개발한다. 전국 2개소 중 함평이 선정돼 10억 원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액비저장조 허부에 고착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함평에 7억 원, 한우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마일형 공동퇴비장을 나주, 무안, 구례에 구축하는데 총 8억 원을 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축산농가 악취 개선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친화축산 선도를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 저녹스 버너 교체비용 지원

공장·상가·공동주택 보일러 대상 최대 90%

광주시는 공장, 업무용 상가나 공동주택의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노후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할 경우 보일러 용량에 따라 248만 원에서 최대 1,520만 원까지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으로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는 연소시 화염 온도와 산소 농도를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이는 고성능 버너로, 일반 버너보다 연료를 2~10% 절감할 수 있다. 주요 온실가스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일반 버너보다 52% 이상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68억 원을 투입해 993대를 교체했다. 이는 연간 질

소산화물 383톤과 이산화탄소 5만 147톤을 줄여 연간 승용차 8,400여 대의 운행 중지와 맞먹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30대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24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노후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골프장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퍼온이 만든 Vending Machine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43인치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자판기입니다.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

홍지영 민주당 도당 대변인, 장흥군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홍지영 대변인(사진)이 ‘문화관광도시 장흥’, ‘미래 신산업 도시 장흥’ 건설의 비전을 내걸고 23일 전남 장흥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장흥 회령정성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산들강 바다 호수 등 5대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기회의 땅 장흥에 문화의 힘을 더해 장흥을 남도의 문화관광 중심도시

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정치 혁신 없이는 지역발전도 요원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군정 개혁의 방아쇠는 지역 정치의 혁신에 의해서만 당겨질 수 있고,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의 일꾼 홍지영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언론인·

문화행정가·집권당 핵심당직자로 33년간 일해 온 경험과 경륜을 녹여 장흥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장흥=이욱현 기자

